

음주, 흡연 및 운동 습관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: 환자 - 대조군 연구
 도민희*, 김현자, 이상선, 정파중¹⁾, 이민혁²⁾.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, 한양대학교 의과대학
 의과학교실¹⁾,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교실²⁾

Alcohol consumption, Smoking, exercise habit and Breast Cancer Risk: A Case - Control Study

Min hee Do, Hyun ja Kim, Sang sun Lee, Pa jong Jung, M.D.¹⁾ Min hyuk Lee, M.D.²⁾
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, Hanyang University, Department of Surgery,
 Hanyang University Medical School¹⁾ Department of Surgery, soonchunhyang University
 Medical School²⁾

한국 여성에 있어서 유방암은 아직은 서구의 경우보다 발생률 및 사망률이 낮지만 1980년
 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유방암의 위험 요인으로서는 월경력, 임신력, 수유력과 가족
 력 및 유방 양성 질환의 과거력과 내, 외인성 호르몬 및 식이 요인 및 생활 습관 등의 환경
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. 이 중 생활 습관과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음주와 흡연
 및 운동의 경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 하였으나 국내
 연구의 경우 생활 습관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. 이에 저자들은 우리나
 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 위험과 생활 습관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- 대
 조군 연구를 실시하였다. 연구 기간은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 까지로, 서울의 3차 진료
 기관인 한양대학교 병원 및 순천향 대학 병원 일반외과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총
 108명을 환자군으로 선정하였다. 대조군의 경우 환자군과 동일 기간내에 동일 병원의 일반
 외과, 성형 외과 및 안과에 내원한 입원과 외래 환자 중 환자 군과 폐경 상태 및 연령(4세
 차)에 맞게 짝짓기법을 이용해 선정하였으며, 총 121명에 대해 분석하였다. 설문을 통해 얻
 은 자료는 SPSS 7.5로 통계 처리하였고, 각 변수들에 대해 un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
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. 모든 분석은 폐경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폐경에 따라
 층화 분석하였다. 총 대상자 229명 중, 폐경 전의 여성이 127명으로 총 대상자의 55.46%였
 고, 유방암 발생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대와 50대였다. 유방암의 가족력의 경우 폐경 전
 여성에서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위험 인자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(Odds
 ratio=2.07, 05% CI=1.35-2.71), 유방 양성 질환의 과거력은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
 로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. 흡연 습관의 경우 흡연 여부와 일일 평
 균 흡연량, 총 흡연기간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다. 음주에 따른 연관
 성의 경우 폐경 후 여성에서 일주일에 4회 이상 음주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 높이는 위험요
 인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(Odds ratio=2.63, 95% CI=1.29-2.81, low versus high). 일
 주일에 150g의 알코올 섭취의 경우 폐경 후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 위험을 유의적으로 높이
 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냈다(Odds ratio=1.94, 95% CI=1.34-2.72, low versus high). 운동에 따
 른 관련성을 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여부 및 운동 횟수에 대해 분석하였다. 폐경 후 여
 성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 유의적으로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
 로 분석 결과 나타냈다(Odds ratio=0.47, 95% CI=0.43-0.90).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
 보면 유방암의 가족력 및 유방양성 질환은 유의적인 관련성이 폐경 전의 여성에서 나타났
 고,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인 음주 습관 및 운동의 경우 폐경 후의 여성에서만 통계적으
 로 유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. 따라서, 환경적 인자인 건강한 생활습
 관을 통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특히 이러한 보호효과는 폐
 경 후 여성에서 더 큰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영양교육 및 건강 생활 습관 연구
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무엇보다 많은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
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